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오전 (2부) 7시 30분 10시
 오후 (3부) 10시 2시
 오후 (4부) 2시 4시
 금요일전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10시
 오전 (2부) 10시 2시
 오후 (3부) 2시 4시
 주일에배 (7시 30분)
 수요일전 (1부)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3월 10일 (제680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우 칼럼

십자가를 져라

가정적으로 좀 힘든 어느 성도가 내게 가족이 십자가라고 하소연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은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가족이 힘에 부칠 때가 있고, 가족 때문에 고��스러울 때도 있지요. 그래서 십자가라 생각하겠지만 십자가의 의미는 힘에 겹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무거운 행를 지고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주님의 기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26:39). 곧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주님이 당신의 뜻을 접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다.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을 다 내려놓으면 천성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없어져 좁은 길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생각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견고한 잔이다(고후10:4). 그러므로 올리는 이 잔을 과감하게 파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보자. 내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나는 이 땅에 예수를 모시고 왔다

“나는 이 땅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는 목사님이 과테말라(Guatemala) 도착 일정으로 공항에서, TV 방송국에서, 대통령 아들을 만난 자리에서, 목회자, 실업인 세미나에서, 야외집회에서 공회하신 말씀이다. 이 한 마디에 과테말라는 환호했고, 감동했고, 열광했다.

집회 첫날은 헤세(Jesse) 목사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깊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말로만 들던, 영상으로나 보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그들은 어쩔 줄을 몰랐다. 라구나(Laguna) 선교사가 사

젊은 헤세 목사, 그리고 여러 목회자들이 깨달았다면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이런 것이다.”

목사님은 이날날 목회자 세미나에서 과테말라 목회자들을 향해 ‘우리는 예수와 함께’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역설하셨다. 목회자 세미나에 앞서 Canal 27 TV 방송국 사장실에서 대통령 아들 부부를 만났는데, 목사님은 이번 집회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그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많은 조언과 간절한 기도로 그를 축복해주셨다.(관련기사 4면)

목회자 세미나 시간에 한 과테말라 목회

를 향해 집중합시다.”

통성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목회자를 하나하나를 터치하고 있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기도 하고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통회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헤세 목사는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녁집회는 완전히 일신되었다. 대형스크린에 날작한 계단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헤세 목사는 라구나를 깊이 포옹하며 감사를 표했다. 대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장면이었다. 찬양하는 가운데 이미 발이 옥토로 깔리고 있었다. 여기서



성령의 대소동이 일어난 과테말라 시티 집회 광경

전에 신신당부했던 영상스크린이나 단상 계단에 대해 헤세 목사는 알았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그리 중요한지 알 수 없었다. 집회 중 여기저기서 귀신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는 성도들을 단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좁고 작은 계단은 누가 보아도 사고를 유발하기 쉬웠다. 계다가 단상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을 회중들은 보고 싶어 안달이었겠지만,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영상시스템으로 매우 아쉬워하는 상태였다. 집회가 끝나자 헤세 목사를 비롯한 현지 목회자들은 떠나지 않고 남아 회의를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목회자들이 하나가 된 것이다.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다.

“그래? 그렇다면 이 집회는 대성공이다.

자가 질문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 30년 동안 기독교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절보다 마약, 살인 등 더 많은 범죄들로 나라는 불안하고 살기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교회들은 더 많아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목사님은 명쾌한 답으로 말씀하셨다.

“이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이 나라를 위협하는 악한 영들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 탓도 아니요, 바로 여러분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를 살리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더 나은 미래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귀신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는 모습들이 보였다.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전쟁이 끝나 있었다. 집회는 그야말로 신명나는 천국 잔치였다. 뜨거운 찬양과 그들 표현대로 무쥬 데모니오(Mucho Demonio, 귀신), 무쥬 밀라그로(Mucho Milagro, 기적)였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단상으로 끌려 올라왔고, 그 와중에 소경, 귀머거리, 병어리들이 고침을 받았다. 특히 간만에 걸려 침상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일어나 감자 눈물로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은 모든 이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감동의 장면이었다. 성경의 표현대로 과테말라 도성에 대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다음 주에 계속)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 단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과테말라 목회자 세미나



침상에서 일어나 감자 눈물로 기뻐하는 아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욥8:5~10)

모르는 것은 물어보는 것이 지혜다

어느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늦게 얻어 아들은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린 것을 놓고 눈을 감자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과 평생 같이 했던 종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자네는 듣게. 내가 이 어린 것을 놓고 가자니 눈을 제대로 감을 수 없을 것 같네. 자네만 믿네. 내 재산 모두는 자네가 갖게. 다만 저 어린놈에게는 하나만 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노종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인의 전 재산이 자기 것이 되었으니 이제 팔자가 뚫려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려도 상황이 파악된 아들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이럴 때에 뭔가 깊은 뜻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평생 아버지께 늘 하였던 말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랍비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신 아버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랍비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하니 랍비가 웃으며 말합니다. “네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만일 전 재산을 너에게 줬더라면 아마도 종을 너를 해칠 것을 거다. 이제 재판관이 너에게 무엇을 택할 것이냐 물을 때 너는 다른 것 말고 네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진 종을 택하거라.”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분야에 잘 아는 분께,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수척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지식 온 머느리가 음식 한다고 이것저것 해보아 솔직히 별 맛 없습니다. 그럴 때 시어머니에게 여쭙보는 겁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끓인 된장국이 너무 맛있는데, 저는 그 맛이 안 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별 것 다 물어본다.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몰라?”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별 것 있니? 쌀뜨물 붓고, 집 된장 풀고 두부 넣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시범을 보이십니다. 이왕 시작한 거 된장국 뿐 아니라 나물 무치는 것도 가르쳐주십니다. 시어머니는 대학 나온 머느리가 물어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내색은 안 하지만 ‘우리 머느리가 내 음식 솜씨를 인정해 주



나.’ 하고 머느리가 예쁜 겁니다.

몇 주 전에 매주 수요일에 있

는 대학청년부들을 위한 JCO아카데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든지, 회사에 들어가든지 회사사람에게 자주 물어봐라. 그러면 그 상사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것이라 여겨 너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관심을 갖게 된다.” 예,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가끔 일을 다 저질러놓고 수습을 못해서 뒤늦게 저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일을 하기 전에 제게 물어보면 좋으련만,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 때서야 물어보니 답답할 수밖에요. 그래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자기 고생하니까, 따라가는 성도들 고생하고 시험 들지,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 낭비했지, 얻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 때 제가 꼭 하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내가 죽었냐? 왜 안 물어봤어?”

모르는 것은 아는 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 되시며,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물어보면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실패하러야 실패할 수 없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생활에서부터 구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모르면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보낸 자가 누구 나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출3:14)고 가르쳐주십니다. 또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요, 아버지는 이방 사람인 혼혈인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와 이름을 저주하며 모세 앞에 끌려옵니다. 그 때 모세는 잠시 그를 가둬두라고 한 후에 여호와와 하나님께 “어찌할까요?” 하고 여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돌로 내리쳐죽이라고 하십니다(레24:10~14). 또한 민수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에 어느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베었다 딱 걸려서 모세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민수기 27장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에게는 아

들이 없었습니다. 다섯 명의 딸들만 있었습니다. 그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어찌 해야 할 지 몰라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주장이 옳다하고 딸만 있는 집에도 기업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
모방은 제의 창조다**

모세는 모르는 것을 지레짐작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안타깝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뿐 아니라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행할 일까지 자세히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물었는데 열 가지를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저도 묵히 28년 동안 솔하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론 단독으로 결정을 내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고통을 받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소한 것까지도 여쭙습니다. 저와 상담해본 사람들은 ‘기도해봅시다’라는 제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겠다는 뜻입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게 쫓겨아 죽게 되자 스스로 자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 죄가 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은 하나님께 묻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이었습니다. 성심성의껏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 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 처음은 기도요, 그 다음은 정직이요, 그 다음은 옛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세대가 그 경험과 지혜에 있어서 ‘옛 시대’, 또는 ‘열조’와 비교될 수 없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우(knowhow)’, 이것을 알면 패사 쉬워지고, 빨리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 상사에게, 선배에게,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일을 추진하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사 절대 화내지 않으시고 자세히,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아는 자에게 물어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둘러리도 두드려보고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

아는 척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혼자하려고 합니다. 땀방에 헤딩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나 땀방에 헤딩하면 죽을 만큼 고생합니다. 모르는 걸 혼자해보겠다고 하면 실수하고 실패하다 시간, 돈 다 낭비하고 진은 진대로 빠지고, 스트레스 쌓여 병 걸립니다. 한 마디로 비효율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단 번에 끝납니다.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안 가르쳐줄 것 같지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어보면 은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물어본 사람은 적어도 목회에 관한 한 저를 신뢰하고, 저를 인정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일에 힘을 뿜어가며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다 가르쳐줍니다.

::객원컬럼::

탐욕을 버리세요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울타리를 쳐진 포도밭을 지나고 있었습니 다. 울타리 너머에는 탐스럽게 익은 포도가 여우의 입맛을 돋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좁은 울타리 사이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우는 꾀를 내어 삼일 동안 밥을 굶어 살을 뺀 뒤 훌쩍해진 몸으로 울타리를 지나 포도밭으로 들어갔습니 다.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는 마음껏 포도를 먹고 또 먹었습니다. 포도를 먹은 여우는 울타리를 빠져 나오려고 하자 몸이 붙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는 울타리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다시 삼일을 굶어야 했습니다. 포도밭을 나온 여우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포도가 잘 익어 매우 맛있었지만, 내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 들어가기 전이랑 후랑 달라진 게 없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처럼 손을 꼭 쥐고 태어나지만, 막상 세상을 떠날 때는 손을 활짝 펼친 채 죽습니 다.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 다.

오늘날 탐욕으로 인해 자신과 이웃이 파괴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인간이 파괴된 근원은 에덴동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인간으로서의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고 빗나감으로써 탐욕을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대야들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야에 들어있는 물은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반대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자

기 쪽으로 흘러오게 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 가지고 싶은 것은 오히려 멀어지고, 내가 얻는 것보다 남에게 주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정신적 불안과 육체적 파괴를 야기 시키고, 모든 인간 불행사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후회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 기울이고, 탐욕을 넣어주는 악마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의 유혹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거역하는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죄의 길을 버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총 613개의 계율을 부여했는데, 그중 365개는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계율이고, 248개는 인간이 해야 할 계율입니다. 365개의 금지 지침은 일 년 365일과 동일하며, 248개의 행동지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뼈마디의 숫자와 상응합니다. 우리는 365일 동안 하나님이 금지한 행동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248개의 행동지침은 온 몸을 다 바쳐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28년 전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교육학자 한 분이 사자 성어가 적힌 족자를 결혼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족자에는 지족자부(知足者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이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부

부가 지금까지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준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부나 화려함 같이 없어도 될 것을 찾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라. 육체의 욕구를 들어주면 줄수록 영혼의 힘은 약해진다.”라고 인생의 마지막을 2년 남겨두고 완성한 책에서 삶의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평생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었는 데,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달라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먹을 것을 막 가져왔을 때 거지가 찾아왔습니 다. 임종을 눈앞에 둔 남자는 가족에게 자신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거지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일 뒤 그는 세상을 떠난 후, 꿈속에서 가족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살아서 자신을 많이 베풀어라. 이제 와서 보니 내가 한 유일한 자선은 죽기 전 거지에게 베푼 음식이 전부더구나. 하지만 난 그로 인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었던단.”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남을 위해 선을 베푸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자 탐욕을 억제할 수 있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남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배려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관섭 장로

레미아 응답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JC Academy series

성경은 거울이다

지난 2월 27일, JC 아카데미 원장 이시대 목사님의 민수기 강해.

“오늘 살펴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배운 내용을 삶 속에서 직접 부딪치며 점검시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네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가는 길과 음식으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많은 자가 불행에 몰려 죽은 사건입니다(민 21:4-9).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하여 일체 원망해서는 안되며, 생명길인 이 길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가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반항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습니다(민 12:1-16).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250인의 장로들 역시 하나님께 진멸되고 말았습니다(민 16:1-35).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곧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의 종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할 때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이 절하게 했을 때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트리바 물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은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민 20:1-13).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한 열 명의 정탐꾼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며 원망을 멈추지 않자, 하나님은 ‘대체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민 14:11)’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 것도 손에 잡지 않을지라도, ‘믿는 자’는 그 약속이 가져올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와 아랍,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축복을 받은 이들을 본보기 삼아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여정을 잘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성경이 곧 거울이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넘어진 자들을 보고도 넘어지는 자는 어리석다. 잘못된 자를 보고도 잘못을 행하는 자 역시 어리석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을 옆에 두고 보고도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늘 상고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싹이 자라날 수도, 열매가 생겨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민수기에서 배운 대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제하고, 주의 종에게 대적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넉넉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급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길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는 저 천국에 차근차근 상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젊은이들이 되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도 그 모습을 잊어버린 자와 같다.’(약 1:23-24).

이국진 기자



귀를 기울이세요

50만 번 이상의 기도장부 응답된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몰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국 브리스톨의 예술리 다운이라는 지역에 세계적인 규모의 고아원을 지었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그것을 운영한 사람이었지요. 1849년 6월, 그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한 지 12년 만에 새로운 고아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고아원의 이름을 결코 ‘몰러의 고아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나에게 영예가 돌리지 않기 위해서다.”

또 세월이 흘러 그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을 때, 수많은 고아들이 몰러를 기념하기 위한 묘비를 크고 아름답게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몰러는 그의 사위에게 자신의 묘비를 크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기념비는 필요 없다. 나를 통해 회심한 모든 신자들이 다 나의 영원한 기념비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기념비를 주셨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남을 구제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상이나 영예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전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요, 구제는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열매요, 기념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상이나 영예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실 크고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신재식 전도사**

정치는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2:9).

지난 주 이 지면에서 밝혔듯이 모두가 떠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헤세(Jesse) 목사의 결단과 기도,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권력자들이 돕게 해달라는 목사님의 기도, 끝으로 이번 과테말라 집회를 위해 금식하며 애절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결과였다.

과테말라(Guatemala) 대통령의 아들이자 믹스코(Mixco) 시의 시장인 오토 페레스(Otto Perez Leal)는 이번 집회뿐 아니라 목사님을 모시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었다. 최고의 숙소와 음식, 경찰 경호, 차량지원 등 과테말라를 떠나는 날까지 그의 섬세한 배려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목사님은 목회자 세미나에 앞서 Canal 27 TV 방송국 사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흰철한 키에 깊은 눈을 갖고 있었다. 첫인상이 매우 인상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가 목사님께 한 말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다였다. 그는 30분 내내 목사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있었다.

“먼저 이렇게 우리를 환대해주고 대접해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0세라니 아들로 생각하고 몇 가지 권면하겠습니다. 대통령이신 아버지의 업적에 대해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30년 내전의 고통을 게릴라와의 협상을 통해 종식시켰다니 정말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나

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권력이나 명예, 돈이나 얻으려고 하는 게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 국민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치입니다. 나도 한 때 정치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하나님은 누구고, 한국의 하나님은 누구며, 과테말라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다 같은 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전쟁의 폐허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 새벽기도, 철야기도에 힘썼고, 둘째로 온 국민이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끈 원동력입니다. 당신도 이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주위에 인재를 모아야 합니다.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이 나라의 인재들 불러들여 중용하고, 선진국, 선

진도사들을 보고 모방하는 겁니다. 또한 이 나라에 해외자본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치 우선, 치안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TV나 신문 등 언론 방송에 나가 ‘이 나라는 잘 살 수 있다! 한 번 힘을 합쳐 힘써 보자!’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언론과 적이 되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언론이 당신을 광고해주고 좋은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처럼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내가 한 말들을 가슴 판에 잘 새기고 실천하면 반드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 날에 나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언제든지 오면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정치가, 기업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너무 가난한 이 백성들에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 돕겠습니다.”

오토 페레스 시장은 깊이 깨닫는 표정이었다. 그는 과테말라 시뿐 아니라 우리 가 두 번째 집회 도시인 알몰롱가(Almolongá)로 가는 길에도 경찰경호 차량을 계속 붙여주었다. 또한 그는 우리가

떠나기 전날, 호텔 컨퍼런스 룸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영상을 보여주며 과테말라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목사님은 감동적인 영상들과 깊이 있는 분석 자료들을 제작하여 미국이나 한국 등 선진국에 광고하라고 조언해주셨다. 그러면 그 자료들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해보겠다고 약속하셨다. 오토 페레스 시장 부부는 목사님께 깊이 매료된 모습이었다. 오는 10월에 목사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인 대통령을 꼭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지 과테말라에 오시면 모든 체제비용을 시에서 제공해드리겠다고 목사님을 믹스코 시 명예시민으로 추대하는 증서를 전달하였다.

우리가 권력자를 들어 돕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복음의 문이 더욱 수월하게 열려 하늘나라를 확장하는데 강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번 과테말라 집회는 우리 기도의 응답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끝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번 집회를 위해, 목사님과 우리 일행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대통령 아들 부부와 TV방송국 사장과 함께



대통령 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목사님

Q&A

Q: 타 교단 개척교회를 섬기는 젊은 집사입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상담 중에 성경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과 마태복음 6장 26절과 33절을 인용하시면서 “책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

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직장에 일하려 가려고하니 죄책감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집사님의 사정과 형편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기에 질문에 근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이 단순히 세상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자 믿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지 말고, 예

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일”에 대한 설명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배부르기 위한 떡을 구하는 것보다 영생을 위해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말

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세상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 일만 하라는 해석은 비약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무위도식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거든 먹지도 말고 하라(살후3:10)”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기쁨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 일도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Good News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철학도 ‘비도 마티’라는 학생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하여 도서관에서 열심히 참고 서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명의 철학자가 쓴 책에서 깜짝 놀랄만한 구절을 찾아냈습니다. 그 철학자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책을 읽는 최초의 사람에게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책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법적인 상속자로 인정을 받고 25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행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이 엄청난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

곧 법적 상속인이 되는 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꾀박과 순교 앞에서도 당당하게 임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죄로 인하여 영벌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확

증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는 사람은 값을 치르지 않고 공짜로 받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값 비싼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성경책 속에 기록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상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생복락의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화평 목사